



함께 모여 / Ice Break(마음열기)

🌸 내 오른 쪽에 있는 다락방 식구를 내가 아는 대로 소개해 주세요.



즐겁게 찬송 / 새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읽을 성경말씀 - 로마서 1:16~17(신약 239면)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금 읽은 본문으로 / 은혜와 삶 나누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 하였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 하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 했습니다.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면서 약 2만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약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은 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로마교회는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의 중심의 중심지로 성도들이 언제 핍박을 받을지,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온 교회가 남을 축복하는 기도, 남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 남을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행복과 영적 기쁨과 축복이 주님으로 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을 핍박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넓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탄생도, 가르침도,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영원한 통치도, 천국도 복음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기원, 출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모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3.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칭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에 환경에 좌우 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우 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칭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들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서 성도들이 칭의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포인트】


1.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일까요?(롬1:4)
2.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롬1:7-9)
3.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롬1:16)
4.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롬1:17)
5.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 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 말씀 붙들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소서!
-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 서로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시다!

임 재하신 성령님 안에서 / 모임을 마무리

- 교회 광고
- 1. 다락방 종강은 12/14(금)입니다.
- 찬송 / 새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주기도문